

해상풍력발전, '애물단지'로 전략

고창 부안·새만금 해상풍력 반대... 경제적 과급효과 불확실, 지자체·지역주민 공감 얻지 못해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원으로 꼽히는 해상풍력발전이 '애물단지'로 전략되고 있다.

깨끗하고 안전한 신재생에너지인 해상풍력이 지자체와 지역 주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육상과 비교하면 소음과 진동 피해가 작은 장점이 있는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이 위해서는 경제성을 극복하면서 주민 수용성까지 해결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11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고창 부안군 해역에서는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고창과 부안지역 어민들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창 부안 해상풍력사업은 (주)한국해상풍력이 2020년까지 실증단계(80MW), 시범단계(400MW), 확산단계(2천MW)로 나눠 2천500MW 규모의 풍력단지를 조성한다. 사업비로만 12조원 넘게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이다.

국내 최대 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설 계획이었던 '새만금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도 전북도와 군산시가 반대하고 나서면서 반쪽짜리 사업으로 전략할 위기에 처했다.

총 4,400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한전KPS(주), 미래에셋 등이 '새만금 해상풍력발전주식회사'를 설립해 4월 부터 새만금 방조제 인근에 국내 최대 규모(99.2MW급)의 발전단지를 2018년까지 조성하려는 것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6일 새만금 해



새 청소년증 발급받는 학생 지난 10일 중로구 청운호자동 주민센터에서 한 학생이 교통카드와 선불결제 기능을 갖춘 새로운 청소년증을 발급받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새 청소년증을 11일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무료 발급한다고 밝혔다.

상풍력주식회사의 '해상풍력발전사업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 그러나 도와 군산시는 MOA 체결식에 불참하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전북도는 "해상풍력발전단지는 글로벌 명품도시를 만들려는 새만금 개발 방향과 맞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한 풍력단지 조성의 경제적 과급 효과가 불확실한 데다 단순한 전력생산시설을 유지하는 것이 총 22조원을

투입하는 새만금 개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주체에 대한 특혜 의혹도 사업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해당 부지를 30년 이상 점용하면 새만금 내부 매립과 수변 공간 활용에 제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새만금개발청이 면밀한 검토와 공모 없이 새만금해상풍력주식회사에 사업권을 내

줬다는 주장이다. 새만금해상풍력주식회사의 신뢰성도 의심하고 있다. 아직까지 이 특수목적법인에 참여하는 사업시행사 7곳의 명단과 지분 등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송하진 지사는 "일자리와 소득, 장기적 비전 측면에서 전북에 이익이 되지 않는 풍력발전 사업은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신청 접수

2월 28까지 수산기술연구소

전북 수산기술연구소는 최근 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어가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국내 배합사료 가격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자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시·도지사에게 성분 등 특화된 배합사료와 배양어 분말사료 등을 사용하는 해면 및 내수면 양식어가로 정부용자 지원금리 연 1.0%이며, 지원기간은 3년으로(패류는 2년)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어가당 지원한도는 2억원이다. /인재용 기자

특히 올해부터는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대상자에 대한 사업추진 방법 및 절차에 대한 교육 실시하게 된다. 배합사료 구매기간이 대출실행이후 1년에서 1년6개월로 연장됐으며, 선정순위에서 양식장HACCP 등록업체를 우선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구매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양식어가는 사업신청서, 배합사료 구매계획서, 신용조사서, 양식업 면허허가 신고증 및 행사계약서 사본을 구비해 지역별 관할하는 수산기술연구소에 2월 28까지 신청하면 된다. /인재용 기자

'고교 서바이벌 토론왕' 참가팀 모집

(국회의장배)

전북선거방송토론위원회, 2월 3일까지... 학교당 1개팀

전북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국회방송(NATV)에서 실시하는 '국회의장배 고교 서바이벌 토론왕' 대회에 참가할 고등학생 토론팀을 모집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고교 서바이벌 토론왕 프로그램 온라인 카페(<http://cafe.naver.com/debate2017>)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고 신청기간은 오는 2월 3일까지이며 학교당 1개 팀(3명)에 한해서 참가할 수 있다. 대회방식은 국제대회규격인 Public

Forum의 방식을 근간으로 2팀간 경합을 거쳐 전문심사위원단과 방청심사단의 평가를 합산해 승패를 겨룬다. 대회 입상자에게는 국회의장상, 국회의원총장상, 기타 우수상 및 상품 등이 수여된다.

전북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이번 대회가 고등학생들의 토론능력 향상과 민주시민교육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등학생들과 지도교사의 많은 참가를 당부했다. /인재용 기자

도 자보센터, 어르신 '떡국 나눔' 활동

전북자원봉사센터는 11일 '새해맞이 어르신과 함께하는 떡국 나눔'으로 봉사활동에 첫 시동을 걸었다.

이날 떡국 나눔에는 도와 14개 시군 자원봉사센터에서 대한 노인회 전북연합회 관계자 및 어르신 300명에게 소고기 떡국과 신선하고 고소한 영양 견과류를 대접하는 등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이연상 정무기획과장은 "도민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적극 권장하는 등 자원봉사 활동을 선진국 수준으로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시는 분들과 사랑을 나누는데 소속직원들이 먼저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인재용 기자

단석산업, 도·군산시 생산라인 확장 투자협약 체결

전북도와 군산시는 11일 (주)단석산업과 신규투자를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문동신 군산시장, 진흥 정무부지사, 단석산업 한구재 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단석산업은 군산제2국가산업단지에서 신규 생산라인을 확장하기로 했다.

(주)단석산업은 2011년 군산제1공장 신축으로 전북과 인연을 맺은 이후 2013년 군산제2공장 신축에 이어, 이번에 군산제2공장 1만9,889㎡(6,016평)의 유류부지에 2,790㎡(780

군산2산단에 180억원 투자... 신규 직원 30명 채용

평) 규모로 180억원을 투자해 생산라인을 확장할 예정이다. 군산제2공장은 오늘 3월 착공하고 2018년 하반기에 완공해 본격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주)단석산업이 군산제2공장을 확장하게 됨으로써 체체에 빠진 군산 지역경제에 다소나마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투자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후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

되면 약 30여명의 새로운 신규 직원을 채용할 계획으로 취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안겨준다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협약식에서 진흥 정무부지사는 "매출 1조, 1등 제품, 1등 직장이라는 단석산업의 'GREAT 2020 NO.1'의 세가지 목표를 달성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면서, "붉은 닭의 해의 좋은 에너지와 열정의 기운을

받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 주기를 바란다" 말했다.

이어 "도와 군산시는 투자에 만족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단석산업은 1965년 정밀화학산업 공장 설립과 함께 출발하여 경기도 시흥·평택시, 경북 영덕군 등에 소재하고 있으며, 국가 기초산업의 핵심 원자재를 공급하면서 대한민국의 고도 경제성장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인재용 기자, 군산=문정근 기자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오양모(1938. 2. 18. 생 2016. 10. 8. 사망)의 재산상속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신고가 전주지방법원 오승이 판사의 심판으로 법원에 수리되어 민법 제10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 또는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인에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일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 사건번호: 2016누단1009 상속한정승인 판사 오승이
- ▶ 피상속인: 망 오양모(1938. 2. 18. 생 2016. 10. 8. 사망)
- ▶ 최후주소: 전주시 완산구 권원로 100, 101동 1403호(중노송동, 기린봉아파트)
- ▶ 공고인: 오형일
- ▶ 한정승인수리일: 2016. 11. 7.
- ▶ 공고기간: 2017. 1. 12. ~ 2017. 3. 11.
- ▶ 연락처: (청구인 오형일의 주소지) 서울시 강동구 상일로 72, 317동 301호 (상일동, 고덕리엔파크) 010-2337-0517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